

발송매수: / 매	
수신 성명: 이 동섭 박사님 회사: 아주대학교	발신 성명: 정성교 회사: (주)가람
부서/참조:	부서: 세라믹 사업본부
팩스 #: 0342) 215-5145	전화 #: 0342) 735-5100

매일경제신문 1999. 7. 8 (목)



# 고온집진 세라믹필터 국산화

## 가람, 제철·油化설비등 적용...양산체제 갖춰

윤종연 기자

산업용 모터에 부품으로 사용되는 카본 브러시 생산업체인 가람(대표 박성훈)이 고온 집진용 세라믹필터를 국산화했다.

가람은 환경부의 'G7선도기술'로 지정된 고온 세라믹필터를 6년 간 10억원을 투입해 개발에 성공하고 양산체제를 갖췄다고 7일 밝혔다.

가람이 아주대 환경연구소, 명지대와 산학협동으로 공동 개발한 이 필터는 섭씨 600도 이상 고온과 낮은 차압에서 안정적으로 먼지를 흡수하는 제품으로 크기가 1㎡다.

가람은 이 세라믹필터를 제철 석유화학 제지설비에 적용해 장시간

성능시험을 거쳤으며 소각장에서도 성능시험을 했다.

가람은 이 세라믹필터가 0.3㎛의 입자에서 99.7% 이상 집진 효율을 보였으며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라믹필터는 기존 섬유형 여과 집진기에 비해 3배 이상 속도로 먼지를 빨아들일 수 있는 첨단 제품으로 영국의 SFC 등 전진 전문업체들에서만 개발해 생산하고 있는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600도의 고온에서 집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 집진기에서 열을 낮추기 위해 필수적이던 열교환기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에 이 세라믹필터를 적용하면 설치면적을 절반 이상 줄

일 수 있고 설치비 또한 30%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가람은 이 세라믹필터를 적용한 고온집진기 설계·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유리 시멘트 비철금속 소각로 생산업체에 고온집진기를 공급할 계획이다.

박성훈 사장은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제조되는 필터와 동일한 성능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수출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고온집진 필터 제조방법과 설비에 대해 5건의 특허를 출원한 가람은 대구 달성공장에 양산설비를 갖추고 이달 중 본격 생산에 나선다.

(0342)735-5100

# 장 필터

간의 수출물량 요차 있는 상태여서 수출물량을 대기할 정도다. 아시아 현지법인의 과달리로 한국 공업인 1500만달러를

공장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수출액도 현지법인까지 합치 4000만달러 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97년 인도네시아의 외환 위기 때도 다른 외국인 공장들은 현지에서 악탈의 대상이었지만 흥남자기는 달랐다.

전 종업원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출근해 밤새 주위를 경비할 정도로 애사심을 발휘하기도 했다.

김용주 사장은 "미주시장에서 중저가 도자기 제품으로 여기면 시장을 형성하고 싶은 설립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과감한 투자를 시기를 이겨내는 명했다.

세계적으로 도자 수출할 수 있는 곳이 "없는다"며 "앞을 함께 플랜트 나설 것"이라고

# 대한필프 백판지 월 2천톤 日 수출

## 청원 3호기 준공따라 확대 올 1억弗 달성 계획

윤종연 기자

백판지와 위생용품 전문업체인 대한필프(대표 최병민)가 청원 백판지 3호기 준공을 계기로 대일 본 수출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한필프는 지난 5월부터 일본의 제지판매 대행사인 TPPI를 통해 월 500t씩 수출해 왔는데 올 하반기부터 수출 물량을 월 1000t, 내년 말까지는 월 2000t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일본에 백판지 시장을 개척했던 대한필프는 연간 2500t 규모로 수출해 왔으나 연산 18

만t 규모의 청원 3호기 준공을 계기로 수출물량을 대폭 늘리게 되었다.

대한필프는 하반기 수출물량이 급증해 올해 백판지 수출목표인 1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필프는 "일본의 대형 인쇄업체들이 청원 3호기에서 생산하는 백판지 품질을 인정해 대규모 물량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필프는 이와 함께 두루말이 화장지 원단도 이달부터 일본 시장에 수출한다.

대한필프 화장지는 100% 필프로 만든 제품으로 이달부터 월간 150t을 수출하고 내년부터는 월 300

t 규모로 수출물량이 늘어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 소년의집에 문구 기증 모닝글로리

종합문구회사인 모닝글로리(대표 황귀선)가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서울시립 소년의집에 문구류 8500만원어치를 기탁했다.

모닝글로리는 90년부터 해마다 일정량의 문구를 소년의집에 기증해 왔으며 매년 기증물품을 늘려 왔다.

소년의집은 97년 개원했으며 마리아수녀회가 18세 미만 정상인과 장애인 916명을 보호하며 교육하는 곳이다.